



日本 消費者 食品包裝표시에 많은 관심

— 食品포장표시는 메이커와 消費者의 신뢰관계 매개체 —

日本 農林水産省은 전국 주요도시 1천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식료품 소비 모니터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매우 흥미있는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식품을 구입할때 가장많이 확인 하는것이 製造年月日로서 90%이상의 주부가 '반드시 확인한다' '가능한 확인한다'라고 회답했다.

다음으로 관심이 높은것이 '食品첨가물의 有無 및 내용' '원재료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빵류·곡물가공품, 과자류 및 조리식품등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서 '제조년월일'을 든 주부가 70% 이상, '식품첨가물'을 든 주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야채 및 과일류에 대해서는 80%이상의 주부가 '약품사용 유무'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선류·육류에 있어서는 '냉동·냉장의 구별'을 든 주부가 45.9%로 가장높고 다음으로 原産國이 38.3%, 생선류에서는 '生·冷凍'의 구별이 72.3% '魚種'이 59.9%, '천연·양식'의 구별이 56.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무첨가 등 표시' '당류·식염표시'를 참고로 하고 있는 주부가 90%로 의외로 많으며 '유기등 표시' '선도강조표시' '천연·자연등 표시에 대해서는 약 80%의 주부가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加工食品에 표시되어 있는 영양성분표시는 약 50%가 '될 수 있는 대로 참고한다'고 회답 했는데, 그 이유는 평소부터 '균형 있는 食生活에 유의하기 때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공식품중 '영양성분표시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품목으로서 '肉製品' 및 '수산가공품'을 든 주부가 50%이다.

특히 가공식품에 대한 불만사항으로서는 '근거없는 표시'에 대해 약 80%, '특정재료가 다량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량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에 대해서도 50%이상의 주부가 불만을 품고

연령별 식품포장 표시의 확인도

(단위 : %)

회답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
△생선농산물					
반드시 본다	63.8	59.5	62.4	62.3	66.8
될수있는대로 본다	26.4	31.0	24.9	27.7	25.7
그다지 보지 않는다	8.4	9.5	11.2	8.3	6.1
기타(무회답·포함)	1.4	—	1.5	1.7	1.4
△가공식품					
반드시 본다	73.9	69.0	68.0	76.7	76.0
될수있는대로 본다	24.5	28.6	29.0	22.2	23.1
그다지 보지 않는다	1.3	2.4	3.0	1.1	—
기타(무회답 포함)	0.3	—	—	—	0.9
회답자수(명)	1,018	42	269	361	346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표시가 메이커와 소비자간에 신뢰관계가 없으면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사항을 반증하고 있다.

표시내용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것도 사실이나 금번 소비모니터 조사는 표시에 대해 얼마나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보발신 매체로서의 포장 패키지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특히 자동포장기에 관해서도 선명한 인쇄에는 충분히 배려해야 하고 포장과 표시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미얀마, 農産物 수출 급증

미얀마 재무기획부의 발표에 따르면 '89/'90년도 농업분야의 총생산은 34억弗 상당으로 목표대비 90.8%의 실적을 보였다.

주요 農産物 수출현황

(단위: M/T)

품 목	88/89	89/90	전년대비증감률
쌀	38,910	492,870	1,166.7%
옥수수	894	15,500	1,638.8%
콩	17,477	37,391	113.9%

미얀마의 주요농산물 생산은 쌀, 밀, 옥수수, 콩으로서 이들 생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출은 쌀이 전년대비 1,116.7%, 옥수수 1,633.8% 콩이 113.9%로 급증했다.

파키스탄, 유아용粉乳 輸入증가

—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進出展望 밝아—

파키스탄은 축산가공산업의 낙후로 매년 약 1,500톤의 우유가 생산되에도 불구하고 유아용 분유의 수요전망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86년이후 輸入쿼터제가 폐지된 이후 도시중산층 및 일부 농촌 고소득층의 분유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간분유 소비량은 3천톤(약 950만弗 상당)에 달하고 있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88/89년도 기준으로 전체수입시장의 약 46%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과 화란, 아일랜드, 서독, 그리고 한국 등이며 이들 5개국이 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산의 시장 점유율은 약 2%에 불과하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본은 파키스탄의 분유 수요층이 주로 유명브랜드를 선호하는 고소득층임에 착안해 '87년이후 Meiji, Snow P-7, Chilimil등 분유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한 결과 화란을 제치고 제1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분유는 '86년부터 깡통에 포장되지 않은 밀크파우더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 수량규제의 대상이 되나 깡통에 포장된 완제품의 경우는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다. 또한 수입시 kg당 약 0.465弗의 기본 관세와 12.5%의 판매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국산 유아용 분유의 진출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으나 마케팅 활동여하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브랜드별 소매가격

(단위: US\$, g)

브랜드명	원산지	소매가격	중량
Chimil	일본	2.6	370
Snow P-7	"	2.6	450
Meiji	"	2.7	450
Lactogen (Nestle)	화란	3.2	450
SMA	아일랜드	3.0	454
Baby care	한국	2.1	400

현지 수입상에 의하면 한국산의 경우 경쟁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로 양호하므로 농촌지역 고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수출전망이 밝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중장기적인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 홍보가 매우 중요하며 소비자들이 분유를 선택함에 있어 의사등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점을 감안, 이들에 대한 제품의 우수성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濠洲, 對日 쇠고기 輸出 부진전망

—日本國內 在庫量 10만톤 넘어—

日本內 수입냉동 쇠고기 재고량이 10만톤을 넘고있어 90/91년도 濠洲의 對日本 쇠고기 수출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日本內 수입쇠고기 재고량 증가는 국내 소비량 산출 착오에 기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日本은 88년도 GATT협상결과 수입쇠고기 쿼터량을 88년도 29만4천톤에서 90년도 39만4천톤으로 증가시키기로 합의 했기 때문에 국내의 수입쇠고기 재고부담과 관계없이 90년도중 18만톤의 쇠고기를 추가 도입해야할 실정이다.

또한 日本은 '93년도까지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할 예정인데, 濠洲의 경우 93년도 日本 쇠고기 수입 예상량 70만톤의 50%를 공급, A\$ 15억상당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日本內 쇠고기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인하되지 않고있어 재고량이 증가되고 있다고 濠洲업계는 주장하고 있으며 日本쇠고기 수입시장은 신규참여 수입업

濠洲의 쇠고기 輸出실적

(단위 : t, A\$ 천)

구 분	1988/89		1989.7~1990. 5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일 본	84,960	389,081	95,223	457,240
영 국	3,659	27,762	3,038	25,333
미 국	2,492	6,876	2,219	6,931
대 만	2,300	7,298	2,419	9,427
스웨덴	509	4,443	781	4,524
서 독	898	4,501	784	3,761
기 타	13,138	43,559	27,163	82,396
합 계	107,956	483,520	131,637	589,612

[자료 : 호주통계국]

자들로 인해 투기시장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濠洲 쇠고기 수출업계는 90/91년도 對日本 수출량을 금년에 비해 70% 수준인 7만2천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日, 쇠고기調製品 輸入 급감추세

—高率 輸入關稅 적용으로—

내년 4월의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앞서 금년 4월부터 자유화된 日本의 Boiled Beef 수입관세가 70%로 인상되어 2/4분기중 전년 동기비 30% 수준으로 급감하는등 쇠고기 조제품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내년 4월의 쇠고기 수입자유화시에도 역시 고율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조제품은 통조림이나 Retort식품 원료가 되는 보일드 비프 이외에 外食産業용의 調味쇠고기(Seasoned beef)류, 콘비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소 수입할당제도하에서도 비교적 關稅가 낮았기 때문에 쇠고기의 대체 상품으로서 인기를 끌어온 바 있다.

이들 조제품의 자유화이후 3개월간의 수입실적을 보면 수입관세가 25%에서 70%로 인상조정된 보일드 비프의 경우 765톤으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66.6% 감소되었으며 조미쇠고기류도 전년동기 대비 43.4% 줄어든 515톤에 머물렀다.

쇠고기 조제품의 수입량이 급감한 배경으로는 관세인상 계획에 따라 수입자유화 이전에 수입할당액의 범위내에서 대량으로 수입되었을 뿐 아니라 쇠고기의 도매가격 하락으로 대체품의 매력력이 퇴조하는 등 국내 수요가 부진을 보인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보일드 비프나 조미쇠고기류의 수입관세는 91년도 까지는 70%이나 92년도 60%, 93년도 50%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KOTRA 海外市場)